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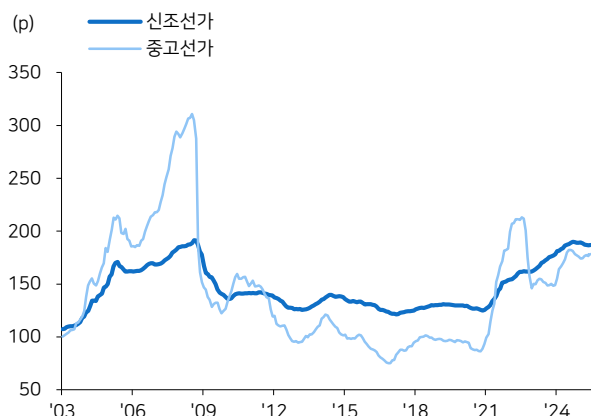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6.8p(+0.2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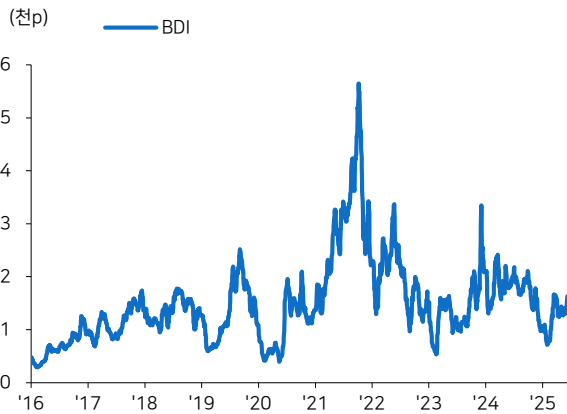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4.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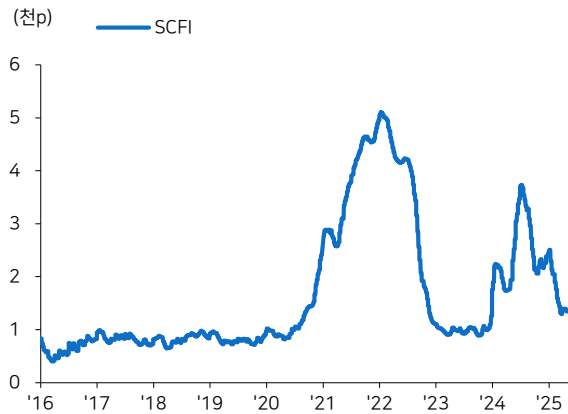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680.0p(-1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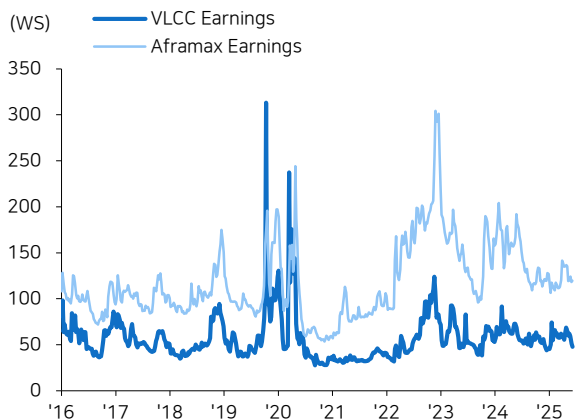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240.4p(+167.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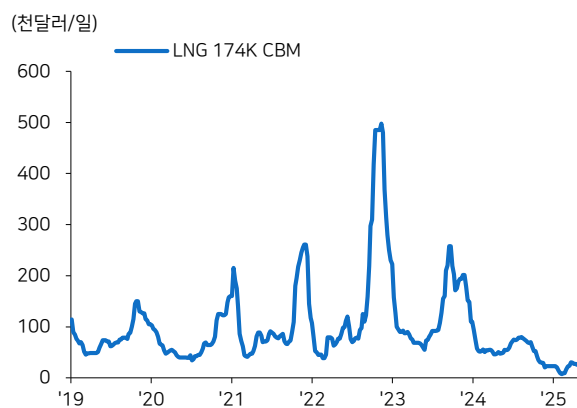
VLCC Spot Rate

47.7WS(-3.7p WoW)



LNG Spot 운임

24.8천달러(-2.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ONE linked to \$1.8bn container ship order at HD Hyundai Heavy Industries

HD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아시아 선사로부터 약 2조4천억원 규모의 1만5천900TEU급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업계에 따르면 이 발주처는 일본계 선사 Ocean Network Express(ONE)로 확인됐다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선박 1척당 약 2억2천만 달러 규모로, ONE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총 45척의 신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미국의 대중국 조선업 제재 가능성에 대응해 HD현대중공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AlkcwQ9>)

STX엔진, HD현대중공업에 766억 규모 선박 엔진 공급

STX엔진이 HD현대중공업과 '선박용 이중연료 발전기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공시했으며, 계약 금액은 766억4,196만원으로 확정됐다고 전해짐. 계약 기간은 2028년 3월 2일까지로 설정돼 해당 기간 내 납품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됨. 대금 지급 조건은 전체 금액의 30%를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70%는 납품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짐.

(블로터)(<https://buly.kr/2JoFgpY>)

한화 필리조선소, 美 정관계 발길 계속...트럼프 지원 기대감 ↑

한화 필리조선소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 미국해사의회 등 정·관계 인사의 방문이 잇따르며 미국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짐. 한화는 필리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2035년까지 최대 10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부담을 미국의 정책 지원을 통해 완화하려 한다고 보도됨. 미국 내 조선업 부흥과 연계된 정부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화 측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알려짐. (뉴스1)(<https://buly.kr/GP2sAC5>)

HD현대미포, '세계 최초' 암모니아 폐기물 보일러로 친환경 선박 상용화 주도

HD현대미포가 WinGD, Alfa Laval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이중연료 폐기물 소각 보일러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고 보도됨. 이 시스템은 암모니아 잔여 가스를 안전하게 소각해 선박 설계를 단순화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Trafigura 발주 선박 4척에 2027~2028년 사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한편 HD현대와 WinGD는 올해를 목표로 암모니아 이중연료 추진 엔진도 개발 중이라고 알려짐. (더구루)(<https://buly.kr/Alkcm9u>)

MSC deal threatens principle of neutrality, warns Panama Canal boss

세계 최대 선사 MSC가 BlackRock과 함께 CK Hutchison이 보유한 파나마 항만 운영권 대거 인수를 추진하자, 시장 경쟁과 운하의 중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보도됨. 파나마운하청 Vasquez 청장은 단일 선사 또는 컨소시엄이 다수의 터미널을 소유할 경우 경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운하청이 직접 항만 운영에 나설 가능성도 제시됐다고 전해짐. 이는 미국 정부의 중국 영향력 견제를 배경으로 한다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7FRTKJP>)

Japan's Shinomiya Tanker orders five bulkier newbuildings as fleet rebuild takes shape

일본의 Shinomiya Taker가 자국 조선소 3곳에 4만 DWT급 벌크선 5척을 총 240억 엔 규모로 발주하며 선대 재편에 나섰다고 보도됨. 이번 발주는 기존 베어보트 계약 선박의 매입 옵션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며, 해당 선박들은 이미 HMM, Lauritzen Bulkers 등과 용선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고 전해짐. Shinomiya는 이번 신조선 5척을 이미 이전 시점에 발주한 걸로 보이며, 첫 번째 선박은 다음 달 인도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https://buly.kr/7bGzIMN>)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